

‘무안공항 사고’ 제주항공, 정부 안전성 평가 첫 ‘F등급’

국토교통부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발표

신뢰성 분야 에어서울 낮음 점수
유럽·동남아 항공사 정시성 낮아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정부 주관 항공사 평가에서 안전성 분야 최저점을 받았다.

운항 신뢰성 분야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3개 외국 항공사 등 53개 국내의 항공사와 국내 6개 공항(김포·김해·대구·인천·청주·제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29일 발표했다.

항공사 평가는 안전성·정시성을 포함한 국내·국제선 각 부문 운항 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이용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적사만 평가한 안전성 부문에서는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평가 기준상 최저 등급인 F(매우 불량)를 받았다. 항공 서비스 평가 결과 안전성에서 F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다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티웨이항공도 E+(불량)를 받았고, 정비 요인으로 회항이 발생한 에어프레미아(C), 이스타항공(B+) 등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

국내선 운항 신뢰성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케이가 A++(매우 우수)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3년 B++(우수)였던 이스타항공은 A+로 점수가 올랐다. 에어서울도 2023년(C+·보통)보다 높은 B+를 받았다.

국제선 운항 신뢰성은 국내외 항공사 모두 운항 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해 평균 B등급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에서는 혼잡이 덜한 지방 공항발 노선에서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 카타르항공이 A++로 최상위로 평가됐다.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은 LCC가 앞선 항공편의 지연으로 출발·도착이 밀리는 항공기 연결 문제로 정시성이 하락하면서 등급이 낮게 나타났다. 에어서울이 D++로 최저점을 받았고,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도 등급이 낮게 평가됐다.

외항사는 루프트한자(E++), 에어프랑스(D+), 비엠펙항공(C) 등 유럽·동남아시아 거점 항공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용 항공로 제약, 운항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등급이 낮았다.

피해구제 적극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보호 충실성에서 국적사는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외항사도 E~F 등급을 받은 경우는 없었고 전년보다 평균 등급이 상향(C→B+)하는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동남아·중국제 항공사는 여전히 피해구제 점수 불편, 합의 애로 등의 문제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말레이시아항공(D+), 길상항공(D++), 에어아시아엑스(C), 비엠펙항공(C++) 등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3만4,07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에어서울(다소 만족)을 제외한 모든 국적사가 ‘만족’으로 평가받았다. 외항사는 싱가포르항공 등 8개 항공사는 ‘만족’, 에어아시아엑스 등 2개 항공사는 ‘보통’ 이었고 대부분이 ‘다소 만족’이었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항공 서비스 평가를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지난해부터는 반년 단위로 평가 결과를 공표해 왔다.

이연수 기자



안전문화 확산 심폐소생술 교육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여수지사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여수안전체 협교육장에서 최근 사업소 전 직원 62명이 참여해 안전체험 교육을 마쳤다. 한전 여수지사 제공

광주상의,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본격 추진

지역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고용 문제 동시 해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역 가전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음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 지역 가전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청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가전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과제를 청년들

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전형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청년에게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신선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 청년들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이하 산대특)을 통해 약 5개월간 R&D 또는 마케팅 분야 전문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실제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신제품 개발, 기술 고도화, 시장 분석, 디지털 홍보 등 자사 현안을 기반으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과 실질적 협업이 가능하다. 단순한 일 경험을 넘어 기업과 청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라는 점에

서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한상원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최신 트렌드와 청년 인재의 시각을 반영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지역 기업의 실제 현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할 가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다. 마케팅 기획,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연수 기자

GICON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

ICT·콘텐츠 기업 동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ICT·콘텐츠 기업들과 함께하는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GICON이 릴레이에 돌입하면 협력 ICT·콘텐츠 기업들이 참여를 이어간다.

GICON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릴레이 시작을 알렸으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시민·기업 구성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투표 인증을 넘어

지역 콘텐츠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선거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참여 기업들은 GICON이 제공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해 각자의 SNS 채널에 투표 독려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콘텐츠 산업계와 함께 건강한 시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신보, 산업위기지역 경제회복 금융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내 지역경제 위기 우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보증’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을 목표로 하며, 최대 5,000만 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여수시를 비롯 중기부·지자체 지정 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시적경영예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를 또한 연 0.8% 고정요율을 적용해 우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제도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연수 기자

금호고속, 신규 노선 운행 광양·구례·남원~인천공항

금호고속은 내달 4일부터 ‘동광양·광양·구례·남원-인천공항’ 신규 노선을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노선은 매일 상·하행 각 1회 정기 운행된다. 지역별 출발시간은 △동광양 00시05분 △광양 00시30분 △구례 01시05분 △남원 01시40분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09시 정각, 1터미널에서는 09시25분에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기준 동광양에서 약 5시간 35분이다.

홍승현 기자



다미정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